

연변조선족
어머니수필회
작품집

이브의 식탁



연변인민출판사

이브의 식탁

연변조선족어머니수필회작품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선애

책임교정: 우송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夏娃的饭桌 / 延边朝鲜族母亲随笔会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5. 8

ISBN 7-80698-532-8

I. 夏... II. 延... III. 散文—作品集—中国—
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093272号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延吉市学苑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 × 1230 1/32 印张: 11.25 字数: 240千字

标准书号: ISBN 7-80698-532-8 / I · 64 (民文)

版次: 2005年8月第1版 2005年8月第1次印刷

印数: 1—1000册 定价: 18.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글을 모으고보니 하나의 식탁이 되었습니다. 새색시가 만든 음식이 있는가 하면 할머니가 만든 음식도 있고 김치장사아줌마가 만든 음식이 있는가 하면 공무원아줌마가 만든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도 가지가지이고 그 맛 또한 짜고 시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별스럽지도 않은 식탁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는 분명 저희들이 차린것이고 여기에는 분명 저희들의 애환과 정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이 되고 《이브의 식탁》이 되지 않았나싶습니다.

-최기자



김미란 김미선
김선희 김순녀
리경자 리영자
리향자 박련희
박정희 백진숙
신영숙 심명주
심예란 장봉녀
전영실 추선자
오경희 오설추
최기자 한애민
(ㄱ, ㄴ, ㄷ순.)



격려사

흑룡강신문사 연변지사장이며 길림성 특파원이신 윤운걸 주임기자님과 절친한 인연으로 연변조선족어머니수필회 최기자회장님을 알게 되었고 회장단을 비롯한 수필회 전체 회원들의 우리 말, 글 지키기와 우리 민족 문화발전의 창달을 위한 노력에 따뜻한 마음이나마 보내주려고 시작한지가 어제같은데 벌써 3년세월을 잡아둡니다. 그 기간 《수필회》는 중국조선족어머니수필응모도 벌렸고 오늘은 이렇게 작품집까지 펴내게 되니 실로 경하할 일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나는 몇번 연변에 다녀오면서 우리 겨레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우리 민족 문화전통을 이어나가

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실감했습니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그 발전전망이 밝고 그 발전 또한 빨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겨레들의 앞날도 밝으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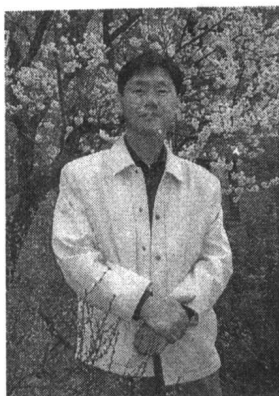
민족어를 잃는다면 민족도 잃게 된다는것은 연변의 겨레들이 더 잘 알고있고 그래서 그네들이 피타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가장 좋은 본보기라는것을 중국조선족녀성 특히는 어머니수필회의 회원들이 잘 알고있는 까닭에 민족어를 후세에게 물려주고 이어나가기 위해 열심히 글을 쓰고있다는것을 수필응모를 통해 피부로 느끼고 저도 민족어를 지키는 일에 지속적으로 동조하게 된것입니다. 저의 적은 성의나마 힘이 되어주었다면 감사한 마음 이룰데 없겠습니다.

최기자회장님이 이끄시는 연변조선족어머니수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 테마21대표 최중각

홈페이지: www.theme21.net

2005년 5월중순



김관웅

매화의 향기 같은 수필을 기대하며
— 어머니수필회 처녀수필집의
출간에 즈음하여

머 리 말

여기 남녘땅에는 봄아가씨가 우리 연변보다는 약 한달 앞서 조용히 찾아온다. 사뿐사뿐 다가오는 봄아가씨의 부드러운 치마자락이 스치고 지나간 곳마다 도처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난다. 배재대학교의 캠퍼스에는 매화를 필두로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 갖가지 꽃들이 런던아 피어나서 봄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이 여러가지 꽃들중에서 내 마음을 제일 끄는것은 단연코 매화(梅花)다. 부지중 모택동의 《매화를 읊노라(咏梅)》라는 사(词) 한수가 떠오른다.

비바람은 봄을 보내고 (风雨送春归)
흘날리는 눈꽃 봄을 맞네. (飞雪迎春到)

아직 벼랑에 고드름이 백장인데 (已是悬崖百丈冰)
 꽃가지는 예쁘네. (犹有花枝俏)
 예뻐도 봄빛을 다투지 않고 (俏也不争春)
 다만 봄소식 전할뿐. (只把春来报)
 산에 뭇꽃들이 만발할 때에 (待到山花烂漫时)
 그속에서 웃으리. (她在丛中笑)

매화송이의 크기는 목련(木蓮)에 비기지 못하고 그 무성함은 벚꽃에 비기지 못하며 그 빛같은 개나리나 진달래에 비기지 못한다. 한마디로 매화는 겉모양이 화사하다기보다는 소담하다고 표현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매화는 여타의 꽃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커다란 매력을 지니고있다. 그것은 꽃샘추위의 기승속에서도 망울을 터치는 강인한 의지, 제일 먼저 봄소식을 알리는 그 선구자적인 기품(氣稟) 그리고 먼발치에서도 풍겨오는 은은한 화향(花香)에 있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매화를 대(竹), 솔(松), 란(蘭)과 함께 화궐수목(花卉樹木)중의 《사군자(四君子)》라고 칭송하는것이다. 매화는 꽃중의 군자(君子)다. 화품(花品)을 론한다면 꽃중의 상품(上品)이다.

조선조시대의 선비 박준원(朴准源)의 《꽃을 보며(看花)》는 다음과 같이 읊고있다.

세상사람들은 꽃의 빛만을 본다지만 (世人看花色,)
 나는 오직 꽃의 기운만을 본다오 (吾獨看花氣)
 이 기운 천지에 가득 찬다면 (此氣滿天地)
 나 또한 한송이 꽃이라오. (吾亦一花卉)

화품(花品)을 론하듯이 녀품(女品)을 론할수 있다. 요즘은

외모만을 최고로 추켜세우는 경향이 극단화되어 성형수술이 크게 유행하고 《얼짱》신드림이 크게 일어나고있기는 하지만 결코 겉모양의 아름다움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체격은 좋지만 문화소양이 없는 이른바 《몸짱》의 여인은 고급옷가게에서 볼수 있는 마네킨과 진배 없고 얼굴만 예쁘고 골통은 비여있어 지적매력이 없는 이른바 《얼짱》의 여자는 향기 없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화(造花)와 진배 없다. 녀품(女品)을 론할진대 이런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여자는 결코 상품(上品)이 될수 없다.

녀자들을 조금만 사귀여보아도 금시 깨닫는것이지만 외모가 예쁜것보다는 마음이 고운것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일차적조건이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아름다운 겉모양은 쉬이 늙어버리지만 아름다운 마음은 늙을수록 진가(真價)를 더 드러내는 법이다. 좋은 향(香)—내심세계의 아름다움과 지적인 매력을 풍기는 사람만이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것이고 그 관계들이 널리 퍼져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나갈 때 세상은 좀 더 아름다와질것이다.

남유럽인 이탈리아의 녀성들은 매우 아름답다. 해빛에 적당히 그을린 탄력있는 피부색과 균형 잡힌 몸매 그리고 정돈된 얼굴들, 누가 보나 남유럽의 아름다움을 넉넉하게 지니고 있는 녀성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탈리아 녀성들보다는 프랑스 빠리 녀성들과 사귀고싶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아름다움보다는 빠리의 녀성들이 지니고있는 정신적인 교양미, 빠리의 한 녀성 한 녀성에게서 풍기고있는 개성적인 녀성미때문일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곧 빠리이지만 예술을 사랑하고 멋을 아는 사람들이 활보하고있는 곳도 역시 빠리이다.

외적미와 내적미가 조화된 삶을 만들어가고있는 주인공이 바로 **빠리**의 여성들이다. 아름다운 밀어(密語)를 속삭이는듯한 그녀들의 대화, 자기나름대로의 개성미를 지니고있는 옷차림과 매너, 푸른 초원을 달리는 사슴처럼 경쾌하면서도 결코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이 모든 조화된 여성의 향기를 **빠리**의 여성들은 가는 곳마다 짙게 풍기고있다.

이러한 **빠리**여성들의 아름다움은 걸모양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주로는 내면적인 내심세계의 아름다움과 지적인 매력에서 오는것이다. 즉 이딸리아여성 같은 다른 나라 여성들이 지니지 못한 교양과 지성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과 풍부한 감성으로부터 오는것이다.

나는 우리 중국조선족의 여성들을 **빠리**의 여성들과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우리의 중국조선족여성들도 **빠리**의 여성들처럼 지적인 매력을 갖추기 위해 그리고 외부적인, 내부적인 미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있다는 점만은 충분히 긍정하고싶다.

어머니수필회는 명실공히 어머니들의 수필사랑모임이다. 어머니수필회가 출범하던 그 조촐한 모임에서 내가 《21세기는 수필문학의 세기로 될것이고 여성문학인구가 대폭 늘어날것》이라고 하면서 축하의 인사말을 했던 일이 어제같은데 이제는 4년의 세월이 흘렀고 오늘은 처녀수필집을 출간하게까지 되었으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

지난 5년동안 어머니수필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일요일마다 거르지 않고 독서회와 작품합평회를 가지고 유명인사들을 모셔다가 특강도 청취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벌려온것을 나는 주욱 지켜보아왔었다. 《어머니수필회》 여러 멤버들의 수필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빠리**의 여성들처럼 지적인 매력을 갖추고저 하는 진지한 몸짓이라고 할수 있다. 《어머니

수필회》 여러 멤버들은 지적인 매력을 갖춘 여성들이고 또 계속 더 높은 차원에서의 지적인 매력을 갖추어나가려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유명한 수필가 피천득선생은 수필은 중년 이상의 나이를 먹은 후에 쓰는 글이라고 말한적 있는데 나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람은 중년에 들어서서야 진정으로 철이 들기때문이다. 남자수필가만이 아니라 녀류수필가도 산전수전을 다 겪어 《녀성의 향기》가 풍기고 《지적인 매력》을 함양한 자아실현의 높은 욕구차원에 이른 중년의 여성들속에서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삶의 진미를 알고 문학을 알고 멋을 아는 중년 이상의 문학녀성의 몸에서는 마치도 매화의 은근한 향기처럼 인간의 향기를 풍기고 지적인 매력이 흐르기때문이다.

책을 읽는 어머니들은 아름답다.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다듬어 글을 쓰는 어머니들은 더욱 아름답다. 비록 녀성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점점 쇠퇴해가는 나이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녀성의 향기를 가장 짙게 풍기는 진짜 아름다운 녀성들이라고 생각한다.

수필은 흔히 붓 가는대로 쓰는 글이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어중이떠중이들이 다 수필을 쓴다고 덤벼드는것도 수필이 접하기 쉽고 쓰기 쉽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수필을 쓰는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 수필은 입문은 쉬운데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것도 수필이 지성과 정서가 교묘하게 결합된 문학이기때문이다. 수필은 많아도 수필다운 수필은 많지 않다는 말도 수필이 가볍게 즐기는 문학이 아니고 장인(匠人) 정신으로 전력투입해야만 성취할수 있는 문학임을 의미한다. 이 글을 빌어 어머니수필회의 여러분들에게 수필문

학의 장도(長途)에 오른 이상 수필공부를 단순히 교양을 위한 지적인 매력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싶다.

수필은 지성적사유와 정서적투영에 의한 새로운 의미부여와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문학이 되어야 하고 수필가는 여가를 소요(逍遙)하거나 인생과 자연을 기술하거나 관찰하는데 그치지 말고 투철한 의식으로 인생과 자연을 투시하고 통찰하여 예술적황홀과 지적인 사유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는 창조적인 문학작품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창작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머니수필회의 대부분 멤버들은 이미 수필에 입문은 했다고 할수는 있지만 수필가다운 수필가로 되려면 아직은 많은 노력을 더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타포(은유)를 동원하여 표현한다면 인간세상에 봄소식을 전하는 매화의 은근한 향기 같은 수필을 쓰기 위해서는 지나긴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꽃망울을 터치는 매화처럼 아직은 뼈를 깎는 노력을 많이 경주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싶다. 이번 수필집을 아마추어로부터 프로에로의 변신을 꿈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매화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온다.

어머니수필회의 멤버들에게서 매화의 향기같은 수필을 기대해본다.

한국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2005년 4월 10일 이쁜봄에

차 례

김미란

팔베개 / 3

혈육의 정 / 9

하루살이가 부럽다 / 14

새싹 / 20

파도 / 21

오이 / 22

김미선

나의 등대, 나의 길잡이—책 / 25

철없던 시절의 인연 / 29

천엽이 주는 계시 / 36

김선희

내 자리는 어디? / 43

달맞이꽃을 아시나요 / 47

빈손에 내려앉는 행복 / 50

정감열선 / 54

아름다운 매듭 / 55

기다림으로 피는 꽃 / 56

김순녀

목련화 / 59

책을 읽는다는것은... / 63

삶의 행복 / 67

리경자

격장법 / 75

삼동치마 / 80

비술나무 / 86

리영자

남성세계에 띄우는 엽서 한장 / 93

사랑은 연필로 / 98

새로 끓은 차표 / 102

나의 산 / 105

나는 오늘 겨울해살 몇오리를 보았다 / 106

흐린 날의 독백 / 107

리향자

엄마와 여자 그리고 생명 / 111

내 인생 30대 / 118

박련희

요즘 여자, 요즘 술 / 125

님이여, 나의 코신을 가져가시라 / 128

계절이 바뀔 때마다 / 131

박정희

감자 / 137

새벽 / 141

어머니, 나의 태양 / 145

백진숙

나의 여덟살 동년 / 153

엄마의 20대는... / 159

이루지 못한 소원 / 162

소문 / 168

꿈 / 169

가을배추 / 170

신용숙

나의 이름과 인생 / 173

심명주

부채 하나 / 179

나무 그리고 한복 / 183

폭포 / 186

천지 / 187

진달래꽃 / 188

심예란

어머니의 작은 주머니에는 겨울동화가 있다 / 191

성묘 / 194

나는 아들애의 《련애편지》를 써주었다 / 197

콩나물 / 202

가을국화 / 203

조약돌 / 204

장봉녀

졸업사진 / 207

《게임》에 달려든 세대들 / 210

살다보면 / 215

전영실

노력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 / 223

중년의 사색 / 228

현실과 갈망의 엇갈림속에서 / 232

추선자

마음 / 239

태산에 오르며 / 243

정때문에 / 249

오경희

안고름 / 255

골목길 / 258

행주치마 / 262

칼도마 / 265

풀빛생각 / 266

오설추

환원된 생명의 메아리 / 269

성애에 대한 정면교육 / 274

4 이브의 식탁